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試考*

윤 승 준**

Ⅰ 국문초록 Ⅰ

본고는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필된 시론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설화의 분포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세시풍속·민요·마을굿·옹기·방언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도와 민속지도, 전자문화지도 제작과 관련한 기존의 업적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수록되어 있는 <오늬힘내기 전설>의 각편 54편을 대상으로 지리적 분포와 화소별 변이 양상을 검토·분석하여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구체화해 보였다. 특히 <오늬힘내기 전설>의 화소별 결합 패턴이 지역적 분포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오이코타입(oicotype)을 설정하고, 화소 변이 양상에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의 특성을 오이코타입과 함께 고려하면 설화권역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설화학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한국 설화문학지도는 전자문화지도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1차 자료의 수집, ②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한 유형별·모티프별 오이코타입 탐구, ③ 오이코타입에 기초한 설화권역의 설정, ④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WEB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설화문학지도가 완성되면 학술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러한 도정의 첫걸음에 놓인다.

[주제어] 분포, 지역적 특성, 화소, 변이, 오이코타입, 설화권역, 전자문화지도, 설화문학지도, 오늬힘내기 전설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구상 |
| II. 설화의 분포 및 지역적 특성 연구의 성과와 한계 | V. 맺음말 |
| III. 문화지도·민속지도 제작의 성과와 한계 | |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단국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yoonsj@dankook.ac.kr

I. 머리말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과 민요나 마을굿을 비롯한 학계의 민속지도 제작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 설화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의린, 손진태, 임석재, 박영만, 최상수, 진성기, 유중선, 임동권, 김광순, 최운식 등 개인이 수집한 민간설화집이 일찍이 간행된 바 있고,¹⁾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²⁾와 각 지방의 시·군지와 전설지·민속지, 『내 고장 전통 가꾸기』가 1980년대 속속 출간되었으며, 이후 최근까지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설화집들이 번역 소개되고,³⁾ 『영남 구전자료집』⁴⁾과 『호남 구전자료집』,⁵⁾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⁶⁾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집들이 공간되면서 이제는 자료의 부족이 아니라 자료의 정리와 활용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⁷⁾

설화 자료의 정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유형 분류와 모티프 인덱스, 분포도의 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설화의 유형 분류와 모티프 인덱스에 대해서는 조희웅,⁸⁾ 최인학,⁹⁾ 조동일¹⁰⁾ 등의 업적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분포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성기열¹¹⁾과 최내옥¹²⁾에 의해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한국 설화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분포도 작성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다행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문화지도 및 민속지도 작성과 관련한 논의와 제작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한국 설화문화지도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본고는 한국 설화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착상과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하여

- 1)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손진태, 『조선민담집』, 향토사, 1930;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1987;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진성기, 『남국의 전설』, 박문출판사, 1959;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76; 유중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1971; 임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72; 김광순, 『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 최운식, 『충남의 민담』, 집문당, 1980;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1~82, 1980~1988.
- 3)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설화집은 최인학, 김현선, 권혁래, 신원기, 강재철 등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손진태 지음, 최인학 옮김,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심의린 지음, 최인학 옮김,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이시이 마사미 지음, 최인학 옮김, 『1923년 조선설화집』, 민속원, 2010; 손진태 지, 김현선 외 역, 『조선 민화에 대하여』, 도서출판 역락, 2000;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저,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심의린 지, 신원기 역해, 『조선동화대집』, 보고사, 2009; 강재철 편, 『조선전설동화』 상·하,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 4) 조희웅·노영근, 『영남 구전자료집』 1~8, 박이정, 2003.
- 5) 조희웅·노영근, 『호남 구전자료집』 1~8, 박이정, 2010.
- 6) 신동훈 외, 『도시전승설화자료집성』 1~10, 민속원, 2009.
- 7) 허용호는 1970년대 이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 문화단체, 개인 연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민속조사 결과물이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면서 이를 총괄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는데, 전자문화지도는 그러한 민속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허용호, 「민속자료의 축적과 활용방안 - 전자문화지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 『민속연구』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87~88쪽.
- 8) 曹喜雄, 『增補改訂版 韓國說話의 類型』, 一潮閣, 1996.
- 9) 崔仁鶴,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仁荷大學校出版部, 1994; 崔仁鶴, 「한국 설화의 모티프 분류」, 『說話文學研究』(上),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 10) 趙東一 外,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 I·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11) 成著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 變異 樣相을 中心으로 -』, 一潮閣, 1979.
- 12)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 그 變異와 分布를 中心으로 -』, 一潮閣, 1981.

설화의 분포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문화지도 및 민속지도 제작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설화문학지도 제작 방안에 대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문화지도의 하나로서 한국 설화문학지도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II. 설화의 분포 및 지역적 특성 연구의 성과와 한계

분포는 시간적인 전승과 공간적인 전파가 지표상에서 교차한 결과라는 점에서, 설화의 동태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때문에 분포론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전승되어 온 구전설화의 본질적 측면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설화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成耆說과 崔來沃이 선편을 잡았다. 일찍이 成耆說은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動物譚 7개 유형, 人間譚 7개 유형, 笑話 3개 유형 등 총 17개 유형의 민담을 비교 연구하면서 해당 민담의 분포도를 작성, 제시하였다.¹⁴⁾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분포도였기 때문에 조사의 유무와 다소가 분포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고, 類話의 단순 대비 작업에 그쳤을 뿐 심층적인 해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¹⁵⁾ 설화 전승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그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崔來沃은 현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자못전설, 아기장수전설, 오늬힘내기전설, 홍수전설, 희생효전설의 원형설화를 각각 재구한 뒤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변이 양상을 고찰하고, 지역적 분포도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¹⁶⁾ 이를 통해 논자는 장자못전설이나 아기장수전설, 홍수전설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均等分布型’임을 입증하였고, 오늬힘내기전설은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偏在分布型’임을 보였다. 특히 오늬힘내기전설의 경우에는 주요 화소별 변이 분포도까지 제시함으로써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논자는 ‘원형전설분포도’라고 하여 표준형의 분포를 제시하기는 했으나,¹⁷⁾ 표준형과 변이형의 지역별 분포를 하나의 지도에 같이 제시하여 설화문화권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¹⁸⁾

성기열과 최내옥의 연구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진 민속지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여건 상 전국

13) 崔來沃, 「分布論」, 『民談學概說 - 傳播論에서 構造主義까지 -』, 一潮閣, 1982, 275~278쪽.

14) 成耆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 變異 樣相을 中心으로 -』, 一潮閣, 1979.

15) 成耆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 變異 樣相을 中心으로 -』, 一潮閣, 1979, 231쪽;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 그 變異와 分布를 中心으로 -』, 一潮閣, 1981, 230쪽.

16)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 그 變異와 分布를 中心으로 -』, 一潮閣, 1981; 崔來沃, 「分布論」, 『民談學概說』, 一潮閣, 1982, 275~314쪽.

17)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 그 變異와 分布를 中心으로 -』, 一潮閣, 1981, 242쪽.

18) 지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 영역과 문화 경계지점이라는 빌트하버의 지적을 고려하면, 단순한 지역별 분포를 넘어 문화권역에 대한 표시는 설화문학지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빌트하버, 「민속지도 작성법」, 『민속조사 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145쪽.

단위의 균등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이들의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불가피했다. 또한 설화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거나 원형설화의 재구 및 분포지 확인, 그리고 주변부로의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화소의 변이 양상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역사 지리학적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전제한 것이었다.¹⁹⁾ 자료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없지 않았으나, 설화 분포도 작성을 통한 비교 연구와 설화의 구조와 변이 연구 가능성을 개척한 이들의 업적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자료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설화 분포론에 대한 연구는 成耆說과 崔來沃 이후 이어지지 않았다.²⁰⁾

한편 구비문학의 지역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설화문학의 지역적 특성을 해명하고자 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전승되어 온 자료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자연물이나 지명, 인물 전설을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배경 등 인문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전승집단의 의식을 해명하는 데 치중되었다. 강릉, 고성·속초, 동해 등 동해안과 영동지방 설화에 대한 두창구의 연구²¹⁾와 대구, 구미·선산, 상주, 경주, 안동 등 경북지역 설화에 대한 김재웅의 연구,²²⁾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 과정에서 채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포, 무주, 구례, 청송, 양산 구비문학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검토한 일련의 연구,²³⁾ 그리고 서울과 대구·경북, 독도, 부산, 호남, 그리고 북한의 광포전설과 지역전설을 폭넓게 검토한 권도경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²⁴⁾ 설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설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²⁵⁾ 그동안 널리 조명 받지 못했던 지역의 특수한 설화를 조명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런가 하면 특정 설화(이성계 설화)가 특정 지역(전라남도)에서 전승되지 않는 이유를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²⁷⁾

19) 허용호는 최근 민속학계의 한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속지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의 부활을 경계한 바 있다. 허용호, 「민속지도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2014, 301~308쪽 참조.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기초로 군별 구비문학지도를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내옥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분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전국 각 군을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고르게 조사하였다. 편벽된 지역, 다과가 있는 지역, 전무한 지역, 도서·산중 같은 벽지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그 분포도를 그릴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활용한 모티프 인텍스 작업이나 분포도 등의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최내옥, 「설화 분야의 평가와 과제」, 『구비문학』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90, 115~119쪽 참조.

21) 두창구·이동철, 『嶺東 地域 民謠·說話論』, 국학자료원, 2002.

22) 김재웅,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7.

23) 이영식 외, 『구비문학의 전승과 지역성』, 민속원, 2010.

24) 권도경, 『한국전설과 로컬리티』, 태학사, 2012. 이밖에도 라인정, 임재해, 최명환, 윤승준, 김월덕, 허원기, 오세정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인정, 「충남지역 설화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임재해, 「풍기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성격 - 설화를 중심으로 -」, 『민속학연구』 3,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최명환, 「영월의 전설과 지역의식」, 『지역문화연구』 1,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02; 윤승준, 「龍仁지역의 구전설화 연구 - 그 전반적 특성 구명을 위한 시고 -」, 『인문과학논집』 19,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김월덕, 「무주지역 구비설화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성」, 『민속학연구』 20,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0;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의 문화지형도」,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허원기, 「충주, 남한강 유역 설화의 문화지리」,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오세정, 「지역설화 연구 시론 - 충북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 『한국구비문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5.8.28.

25) 최윤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26) 김현선, 「전주지역 구전설화의 유형과 미학」, 『옛이야기의 발견』, 보고사, 2013.

27) 오세정,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설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설화 전공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전설의 분포를 고찰한 이간용의 연구가 그러한 사례인데,²⁸⁾ 논자는 공주 지역의 전설을 지역별, 소재별, 주제별로 분석하여 공주의 역사적 경험과 인문적 특성, 그리고 자연적 특성이 결합되면서 공주 전설에 일정한 공간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설화의 분포 내지 지역적 특성 연구는 설화학계만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리학계를 비롯한 관련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할 학제 간 통합 연구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설화의 전승 및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이는 권역별로 유형화하여 나타나며, 그 권역이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설화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권역·설화권역에 대한 연구와 설화문학지도 제작에 대한 논의는 그래서 중요하다.²⁹⁾

Ⅲ. 문화지도·민속지도 제작의 성과와 한계

1. 문화권역과 민속·문화지도

문화지도나 민속지도가 단순히 관련 자료의 존재 유무를 표시하는 분포도를 넘어, 해당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정보와 관계, 맥락 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도 제작을 위한 설계와 데이터 구축을 더욱 정밀하게 하였다. 문화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 문화지도 작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문화영역’, ‘문화권’, ‘문화권역’ 등의 개념을 고려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문화권역’이라는 용어는 특정 문화요소가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지리적 영역을 뜻하는 말로, 인류학에서 사용하여 온 ‘문화영역(culture area)’과 ‘문화권(Kulturkreislehre)’의 개념을 종합한 것이다.³⁰⁾

문화권역과 관련한 논의는, 비록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세시풍속이나 민요, 마을굿, 용기 제작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김택규는 세시풍속과 민속예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국의 ‘기층문화영역’을 ‘단오권’, ‘추석권’, ‘추석·단오 복합권’ 등 3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³¹⁾ 논자는 소백산맥과 남

28) 이간용, 「공주 지역 전설의 지리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25: 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29) 그런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과 채록지의 불명확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인물담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설화권역 설정을 시도하였던 최명환의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명환은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화지도 형태의 설화지도 제작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최명환, 「역사인물담 전승과 문화권역 설정을 위한 시도-강원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2009. 8, 58~59쪽 참조.

30) ‘문화영역’, ‘문화권’, ‘문화권역’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강정원, 이기태의 검토가 있었다. 강정원, 「용기 문화지도 작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문화 전파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80~84쪽; 이기태,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동제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1, 역사문화학회, 2010, 522~527쪽 참조.

31)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447~457쪽 참조.

한강 유역을 따라서 동에서 서로 선을 그었을 때, 이 동서 라인의 북쪽이 '단오권'에 해당하고, 그 남서부가 '추석권', 그리고 동남부가 '추석·단오 복합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기본 착상만큼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민속지도 작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³²⁾

민요의 문화권역에 대한 논의로는 강등학³³⁾과 김현선³⁴⁾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강등학은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의 분포 양상과 지역적 판도를 전국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농요권은 하나소리권, 미나리권, 아라리권, 정자권, 상사소리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그 아래 여러 소권역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땅다지는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기능을 고찰하여 중부지역의 지경소리와 중부 이북의 달구소리, 중부 이남의 상사소리·어여라차소리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강등학의 논의는 그동안 각 지역의 국지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여 왔던 민요의 지역적 특성 연구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민요 전체의 권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김현선은 민요의 문화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논매는소리>를 중심으로 한국 민요의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논자는 '토리'만큼 지역적인 특색과 문화적 충돌을 광범위하고 유용하게 적출해낼 수 있는 것이 흔하지 않다고 하면서, 토리에 입각하여 경기민요의 음악권역을 경기북부의 수심가토리권, 경기동북부의 메나리토리권, 경기남부의 육자배기토리권,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서북부의 경토리권 등 넷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우리나라 민요의 토리권역 지도와 연계하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의 판도를 함께 고려하여 한국 민요의 문화지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강등학의 연구가 전국적 분포 양상이라고 하는 귀납적 방법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김현선의 연구는 토리라고 하는 지역유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귀납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문화권역에 대한 연구는 마을굿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기태는 경상북도 각 군에 분포하는 마을신앙의례와 마을제당의 구성요소를 통해서 문화권역을 구분하였는데,³⁶⁾ 논자는 문화특질의 분포를 지리적 것으로 범주화해서 문화적 상사성과 상이성을 구분하는 작업은 지역적 문화특질의 같고 다를음을 구분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³⁷⁾ 또한 허용호는 서울·경기 지역의 마을굿 시기와 형식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문화 지형을 논의하였으며,³⁸⁾ 변지선은 고려대학교 민

32) 허용호, 「민속지도론」에 대한 비판적 점검,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2014, 300쪽 참조.

33) 강등학,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 강등학, 「〈땅다지는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 한국민요학회, 2006.

34) 김현선, 「한국민요의 문화지도 착상과 예비적 시론」,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35) 한편 가사노동요를 대상으로 전국적 분포와 유형별 분포, 지역적 분포 양상을 검토한 백순철은 민요와 지역성, 민요와 생활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이를 전자문화지도화하는 작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백순철, 「가사노동요의 분포 현황과 특징 - 데이터베이스와 전자문화지도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56, 안암어문학회, 2007.

36) 이기태, 「경상북도의 마을신앙의례 분포와 문화권역」, 『민속학연구』 21, 국립민속박물관, 2007; 이기태, 「경북 마을제당 구성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37) 이기태,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 동계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1, 역사문화학회, 2010, 555쪽.

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마을굿 분포도와 전자문화지도를 작성, 제시하기도 하였다.³⁹⁾

물질문화인 옹기에 대한 연구 역시 문화권역에 대한 논의에서 나아가 전자문화지도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배영동은 경상북도 각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에 기초하여 옹기 제작 공정과 제작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 제시하였으며,⁴⁰⁾ 박성용은 옹기 형태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옹기문화 권역을 북부지역권, 서부지역권, 남부지역권으로 3분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박성용은 구자봉과 함께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옹기의 구경(口徑)과 저경(底徑), ‘전’의 두께와 높이 등을 측정하여 그 특징에 따른 경상북도 옹기 ‘전’의 문화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⁴¹⁾

이처럼 문화권역에 대한 논의⁴²⁾는 우리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의 범주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경상북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권역 논의는 국지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여 왔던 지역적 특성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자료 조사와 관련 연구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반면 특정 행정구역 중심의 논의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세밀한 문화권역 구분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나, 논의의 범주를 한정된 까닭에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해석을 요한다. 요컨대 문화권역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문화지도 · 민속지도와 전자문화지도

문화지도는 한 지역의 공간적 폭과 시간적 깊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문화적 事象을 기호화하여 그 분포양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양한 층위의 인문지리적 설명을 첨가하여 지역 문화의 총체적 파악을 도모한다.⁴³⁾ 문화지도는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문화 실상을 이해하고, 문화요소의 지역적 분할과 이동, 전파, 변화의 경향 등을 제시하고 비교·대조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 분포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⁴⁴⁾

38) 허용호, 「마을굿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13, 한국민속학회, 2006.

39) 변지선, 「서울지역 마을굿 전자문화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40) 배영동, 「경북지역 옹기 제작기술의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모색」,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41) 박성용, 「옹기형태에 관한 문화지도」,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박성용·구자봉, 「옹기 ‘전’의 문화지도 제작-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작업-」, 『민족문화논총』 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42) 문화권역 관련 연구는 이상에서 거론한 것 외에도 역사문화학회의 2008년과 2009년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을 비롯하여 많이 있지만, 관련 연구를 일일이 거론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43) 박성용,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7: 1, 2001, 3쪽; 김덕호,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91쪽.

44) 박성용,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7: 1, 2001, 5-6쪽; 김상철·윤유석·정선에·윤나리·권윤경, 「문화지도- 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1,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170-171쪽 참조.

물론 문화지도 또는 민속지도에 대한 논의가 ‘현장성 부재’와 ‘텍스트 중심’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편의적 요소주의’에 기초한 ‘무리한 줄긋기’와 ‘무모한 구별 짓기’, 그리고 문화전파론 내지 역사지리학적 방법의 한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현상의 다양성에 관한 문화지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민족지적 자료와 정보를 소묘하고 해석·분석하여 의미 있는 내용과 맥락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⁴⁶⁾ 문화지도·민속지도 연구와 제작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문화지도·민속지도 연구의 성과와 한계는 한국 설화문화지도 작성에 중요한 지침을 시사할 것으로 본다.⁴⁷⁾

문화지도를 전자적 형태로 구현한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2003년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현재 67개 지역에 대한 편찬을 완료하고 4개 지역에 대한 편찬을 진행 중에 있는 이 사업은 2023년까지 167개 지역에 대한 편찬을 추진할 예정이다.⁴⁸⁾ 전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디지털화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사용자의 능동성을 염두에 둔 구현 방식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조선시대의 방대한 문화정보를 시간·공간·주제의 입체 구조로 조직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문화 현상에 대한 다차원 접근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제1기 연구과제와 제2기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지명·지리지·민속(마을굿·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⁵⁰⁾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시간·공간·주제의 3가지 축을 입체 구조로 설계하여 문화의 내용은 물론 문화가 생성·변이·소멸되는 역동적인 과정, 그리고 그 실제 존재 영역을 지표상에 표시함으로써 다면적 연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사용자의 능동성을 고려한 검색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 그리고 전문적 전자 학술자원을 제공한다는

45) 허용호, 「민속지도론에 대한 비판적 점검」,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2014, 293~308쪽. 남근우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비교민속학의 연구방법론, 특히 전파론적 비교 연구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와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남근우, 「비교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138~157쪽.

46) 박성용,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7: 1, 2001, 4~5쪽 참조.

47) 민속지도 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빌트하버(Robert Wildhaber)의 「민속지도 작성법」을 비롯하여 일본 민속지도와 독일 문화지도 사례가 소개되고,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와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다. 리처드 M. 도슨 編著, 羅景洙 譯,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박성용,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7: 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야스무로 사토루, 「일본에서 민속지도 경향과 방법 - 일본민속 '쇼가즈 카카나(正月魚)'의 사례 -」,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강정원, 「웅기 문화지도 작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 문화 전파론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39, 2008 참조.

48) <http://www.grandculture.net/ko/About?dataType=090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49) 허용호, 「민속자료의 축적과 활용 방안 - 전자문화지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 『민속연구』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89쪽; 김덕호,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94~95쪽.

50)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Intro.do?method=first>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홈페이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 및 자료의 속성과 용량 문제로 인해 본래 기획했던 민속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¹⁾

이밖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전국방언조사를 실시하여 9권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으로 간행하였고, 이 가운데 방언 분포가 선명하고 의미가 큰 153개의 어휘를 선정, 기호의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여 지역차가 드러나도록 하고 바탕색을 이용하여 방언 구획을 표시한 『한국언어지도』를 출간하였다.⁵²⁾ 그런가 하면 <논매기소리>의 음악적·사설적 특징과 사회적·문화적 기능, 지리적 풍토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문화지도를 기반으로 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⁵³⁾ 또한 전남지역 마을곳의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연구도 있었으나,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함평, 장성, 담양, 진도, 화순, 구례, 광양, 곡성, 여수 등 9개 시군에 대한 연구결과를 문헌으로 간행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하였다.⁵⁴⁾

전자문화지도는 기존의 일반 지도와는 달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문화지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기존의 일반 지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교차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원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한 번 제작해 놓으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재생산이나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⁵⁵⁾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은 물론 전문적 학술연구자에게도 그 유용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운용되고 있는 전자문화지도를 통합·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V.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구상

한국 설화문학지도는 설화의 분포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수용·극복하고, 문화지도·민속지도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전자문화지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특정 유

51) 허용호, 「민속자료의 축적과 활용 방안 - 전자문화지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 『민속연구』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89~92쪽.

52)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53) 장동호·차상인, 「논매기소리의 전자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4: 2, 한국사지리지학회, 2014.

54) 나경수, 「전남지역 마을곳의 문화지도 작성」, 『민속연구』 1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7; 나경수 외, 『함평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장성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담양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진도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화순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구례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광양시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곡성군 마을곳』, 민속원, 2007; 나경수 외, 『여수시 마을곳』, 민속원, 2008.

55) 유우익, 『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 연구』, 문화관광부, 1998, 137쪽. 김덕호,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료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93~94쪽에서 재인용.

형 설화의 지역적 분포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작업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 설화문학지도는 설화권역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 변화에 따른 전승과 변이의 추이까지도 읽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지리정보는 물론 사진이나 음성 등 다양한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국 설화문학지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이다.

- ① 1차 자료의 수집
- ② 설화 유형별·모티프별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 검토를 통한 오이코타입의 탐구
- ③ 오이코타입에 기초한 설화권역의 설정
- ④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WEB 시스템 구축

본고에서는 ① 1차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1차 자료의 대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오누힘내기 전설〉을 중심으로 ②와 ③의 작업과 관련한 기본 구상의 실재를 제시한 뒤, ④와 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추진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1. 1차 자료의 수집

근대 이후 구전설화의 채록 작업은 일제 강점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선 총독부와 일인 학자들에 의한 수집에서부터 시작된 구전설화의 채록 작업은 이후 개인 연구자들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 놓았다.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1차 자료는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나온 일본어 조선설화집(61종,⁵⁶⁾ 심의린, 손진태, 임석재, 박영만, 최상수, 진성기, 유증선, 임동권, 김광순, 최운식 등 초기 개인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82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행한 시·군지와 전설지·민속지, 『내고장 전통 가꾸기』, 그리고 최근에 조희웅·노영근과 신동훈 등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구전설화 조사 자료집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입력하고, 순차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화 유형별·모티프별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 검토

여기에서는 〈오누힘내기 전설〉을 예로 들어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오이코타입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오누힘내기 전설〉을 사례로 삼은 것은 전국적

56) 일본어 조선설화집 61종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26~32쪽 참조.

으로 전승되고 있는 광포설화이면서도 지역에 따른 변이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여서 설화권역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12책과 『한국구비문학대계』 82책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오누힘내기 전설>의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을 각각 <표>로 작성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⁵⁷⁾

<표 1> 오누힘내기 전설의 지역적 분포 양상

연번	설화 제목	제보자	채록지	채록시기	출처
1	아나궁 土城과 대성산 石城	金炳善	함북 해산	1932	임석재전집 3
2	오누이 힘 競合	梁好甲	평남 대동	1932	임석재전집 4
3	宋大將城	梁原忠雄	경기 양평	1943	임석재전집 5
4	오누힘내기(죽주산성 전설)	심양근	경기 안성	1981	대계 1-6
5	오누 성 쌓기(계족산성과 화산성 전설)	엄기복	강원 영월	1983	대계 2-8
6	南山城 전설	전중흠	충북 충주	1979	대계 3-1
7	三年城	徐載皓	충북 보은	1974	임석재전집 6
8	三年城	李京洙	충북 보은	1974	임석재전집 6
9	淸州의 山城	尹友園	충북 청원	1962	임석재전집 6
10	九女城 전설	김종대	충북 청원	1980	대계 3-2
11	천마산의 할미성 전설	배두용	충북 영동	1982	대계 3-3
12	묘순이 바위	金庚子	충남 예산	1962	임석재전집 6
13	피꼬리山城과 무란山城	尹戊男	충남 아산	1927	임석재전집 6
14	피꼬리성의 유래	곽성용	충남 아산	1981	대계 4-3
15	두 장수	이건용	충남 당진	1979	대계 4-1
16	문달음	이영래	충남 당진	1980	대계 4-1
17	구물레 구장군	김형창	충남 당진	1980	대계 4-1
18	형제城	俞鎭汐	충남 부여	1942	임석재전집 6
19	이몽학 이야기	윤천금	충남 부여	1982	대계 4-5
20	누나만 못한 이몽학의 재주	최갑순	충남 부여	1982	대계 4-5
21	동생과의 내기에서 저준 李夢學의 누이	이원승	충남 부여	1982	대계 4-5
22	茂盛山城	李應祥	충남 공주	1973	임석재전집 6
23	石崇汙의 유래	이정순	충남 공주	1984	대계 4-6

57) <오누힘내기 전설>의 전승 현황에 대해 보고된 자료는 이밖에도 많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채록한 결과를 자료집으로 공간한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에 수록된 15편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39편 등 54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자료도 활용하기로 한다.

연번	설화 제목	제보자	채록지	채록시기	출처
24	홀어미 산성	설정환	전북 남원	1979	대계 5-1
25	할미성의 부부 힘내기	-	전북 남원	-	대계 5-1
26	김덕령 장군 일화	박영두	전북 남원	1979	대계 5-1
27	부부 힘내기	김기옥	전북 남원	1979	대계 5-1
28	금마탑에 얽힌 전설(오누 힘내기)	백옥련화	전북 완주	1980	대계 5-2
29	김덕령 장군의 오누 힘내기	이상희	전북 부안	1981	대계 5-3
30	김덕령 남매의 힘내기	박정서	전북 부안	1981	대계 5-3
31	할미城	朱宰萬	전북 장수	1969	임석재전집 7
32	홀어미山城	李鎰兩	전북 순창	1920	임석재전집 7
33	김덕령 장군 오누 힘내기	정기수	전남 장성	1982	대계 6-8
34	김덕령 오누 힘내기	조기현	전남 화순	1984	대계 6-8
35	이자겸의 오누 힘내기	이창수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36	김덕령 이야기	정관주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37	김덕령과 누나	하홍석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38	김덕령과 힘자랑	한남수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39	김덕령과 누나와 용마	하응찬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40	김덕령 장군 일화	김동학	전남 화순	1984	대계 6-9
41	김덕령 오누 힘내기	노재구	전남 화순	1984	대계 6-10
42	오누이 힘내기	오문역	전남 화순	1984	대계 6-11
43	김덕령 장군과 오누 힘내기	최문옥	전남 화순	1984	대계 6-11
44	八影山과 男妹의 재주 겨루기	孫恒守	전남 고흥	1962	임석재전집 9
45	송팔영 남매 이야기	박태지	전남 고흥	1983	대계 6-3
46	오누이의 절짓기와 못막기 시험(1)	박동준	경북 월성	1979	대계 7-2
47	오누이의 절짓기와 못막기 시험(2)	김진성	경북 월성	1979	대계 7-2
48	甄萱山城	金貞順	경북 문경	1972	임석재전집 12
49	견훤 전설	최승락	경북 상주	1981	대계 7-8
50	불국사와 오누이	이태석	경북 선산	1984	대계 7-15
51	大谷山城	朴贊善	경남 남해	1968	임석재전집 10
52	장사 남매	양구협	제주 제주	1980	대계 9-2
53	부대각 남매	송기조	제주 제주	1980	대계 9-2
54	홍리 고대각	김택효	제주 서귀포	1981	대계 9-3

〈표 2〉 오누힘내기 전설의 변이 양상

연번	주인공	힘내기			제3자 개입/방법	승자	증거물
		목적	제안자	방법			
1	鹿足夫人 남매	-	鹿足夫人	土城/石城 쌓기	×	鹿足夫人	아나궁 土城
2	오누이	-	-	동산/10층탑 쌓기	×	오라비	掛弓山, 塔
3	宋大將 남매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산신령/이야기	宋大將	碑(宋大將)
4	송재장군 남매	몽고병 방비	어머니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조반	송재장군	죽주산성
5	오누이	-	-	土城/石城 쌓기	어머니/떡	아들	계족산성
6	오누이	得勢	누이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밥	누이	城
7	남매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콩밥	아들	三年城, 龍馬
8	남매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밥	아들	三年城
9	쌍둥이 남매	避禍(滅門, 夢)	어머니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밤, 찰밥	아들	산성, 바위
10	1남 9녀	避禍(滅門)	어머니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딸 무덤
11	남매	-	어머니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피병	아들	할미城
12	남매(묘순, 묘청)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콩밥	오라비	묘순이바위
13	남매	아들 救命	어머니	城쌓기	어머니/점심밥	아들	城
14	남녀	일인자 가리기	마을 사람들	城쌓기	×	남자	피꼬리城
15	남매	-	-	淤치기/개간門 달기	어머니/콩	아들	
16	남매	-	남동생	인천다녀오기/門달기	어머니/놀랭이, 떡	아들	
17	쌍둥이 남매	避禍(滅門)	어머니	영내 치기/門달기	어머니/참	아들	영내, 문달음
18	남매	천하장사 노릇	남동생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형제城, 씨름
19	이몽학 남매	(禍根 제거)	누이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파구터
20	이몽학 남매	逆謀 관철	남동생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피병	아들	최후, 버들잎
21	이몽학 남매	逆謀 관철	남동생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파구터
22	남매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茂盛山城
23	남매	누이 제거	남동생	서울다녀오기/淤막기	어머니/밥	아들	
24	원님, 과부	수절/개가	과부	서울다녀오기/城쌓기	×	원님	大母庵
25	양사언 부부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	-	할미성
26	김덕령 남매	동생 만류	누이	무등산잇기/도복짓기	×	김덕령	묘, 씨름, 최후
27	남녀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	남자	

연번	주인공	힘내기			제3자 개입/방법	승자	증거물
		목적	제안자	방법			
28	오누이	기운자랑 만류	부모	城쌓기	어머니/흰죽	아들	
29	김덕령 남매	힘자랑 만류	-	무등산돌기/베짜기	×	김덕령	씨름
30	김덕령 남매	누이 제거	김덕령	무등산돌기/도포짓기	×	김덕령	묘, 씨름, 최후
31	늙은 내외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	할머니	할미성
32	과부申氏, 薛생원	청훈/수절	薛생원	서울다녀오기/城쌓기	×	薛생원	호레미산성
33	김덕령 남매	동생 교육	누이	무등산잇기/옷짓기	×	김덕령	묘, 씨름, 최후
34	김덕령 남매	동생 교육	-	씨름	×	누이	
35	이자겸 남매	-	-	城쌓기/도포짓기	×	이자겸	옷고름
36	김덕령 남매	-	-	무등산돌기/옷짓기	×	김덕령	묘, 씨름
37	김덕령 남매	-	-	무등산돌기/도복짓기	×	김덕령	최후
38	김덕령 남매	누이 제거	김덕령	무등산돌기/도포짓기	×	김덕령	씨름, 내기2
39	김덕령 남매	-	김덕령	무등산돌기/도포짓기	×	김덕령	씨름, 龍馬
40	김덕령 남매	兩雄不立	-	무등산돌기/도복짓기	×	김덕령	묘, 왜군, 龍馬
41	김덕령 남매	-	-	무등산돌기/도복짓기	×	김덕령	龍馬
42	오누이	救命	누이	활보다 빨리 달리기	×	활	씨름, 龍馬, 최후
43	김덕령 남매	-	누이	무등산돌기/옷짓기	×	김덕령	씨름
44	八影이 남매	분풀이	八影이	城쌓기/옷짓기	×	八影이	씨름, 龍馬
45	송팔영 남매	-	-	城쌓기/옷짓기	×	송팔영	
46	오누이	-	-	절 짓기/못 막기	×	누이	影池
47	오누이	-	-	절 짓기/못 막기	×	동생	(影池)
48	남매	-	-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콩	아들	甄萱山城
49	남매	-	동생	서울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팔죽	아들	야래자, 龍馬, 견훤
50	오누이	동생 救命	누이	절 짓기/못 파기	×	누이	佛國寺, 影池
51	부부	-	-	城쌓기/옷짓기	×	남편	거머리
52	오누이	-	-	씨름	×	누이	
53	부대각 남매	힘자랑 만류	-	씨름	×	누이	
54	고대각 남매	힘자랑 만류	-	씨름	×	누이	

〈표 1〉과 〈표 2〉는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오누힘내기 전설〉의 각편만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과 〈표 2〉는 〈오누힘내기 전설〉의 변이 양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아래의 〈표 3〉은 〈오누힘내기 전설〉 각편에 나타나는 화소별 변이의 내용을 범주화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3〉 오누힘내기 전설의 화소별 변이 범주

주인공	힘내기			제3자 개입/방법	승자
	목적	제안자	방법		
남매	避禍(滅門)	어머니/부모	서울 다녀오기/城쌓기	어머니(산신령)	아들
특정인물 남매	아들 救命	누이	무등산 돌기/베짜기(도포)	/	딸/녹조부인
원님/과부	동생 교육/만류/救命	남동생	절 짓기/못 막기	콩밥(밥, 콩)	원님(생원, 선비)
선비(생원)/과부	장사/城主 가리기	성주/선비/생원	城 쌓기	팔죽(죽)	남편
부부	청혼/수절	과부	湫 막기	떡	
	逆謀 관철/만류	부부	塔 쌓기	피병	
	외적 방비/피난	마을사람들	씨름	이야기	

〈표 3〉에서 보듯 화소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의 양상은 각각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화소는 다시 또 다른 화소와 거듭 연결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화소별 변이의 범주를 전제로 한 〈오누힘내기 전설〉의 이야기 형성 방법은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수천, 수만 가지에 이를 수 있다. 예컨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특정한 인물의 남매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김덕령 남매를 비롯하여 이몽학 남매, 이자겸 남매, 송팔영 남매, 녹조부인 남매 등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데, 이들이 다시 힘내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거기에 다시 힘내기를 누가 제안하느냐에 따라 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힘내기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의 수 ... 등등 화소와 화소를 연결하여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채록된 각편의 수는 수십 편에 지나지 않았다. 화소와 화소의 결합에는 그 가능성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결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님과 과부, 또는 선비(생원)와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각편에서는 힘내기의 목적이 청혼/수절 이외의 다른 것과 결합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화소들 사이의 결합 양상, 그 연결고리에 주목하게 되면, 〈오누힘내기 전설〉의 각편이 몇 가지 패턴을 중심으로 거듭 구연됨을 파악할 수 있다.

3. 오이코타입에 기초한 설화권역의 설정

한 편의 설화를 구성하는 화소들은 다양한 변이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정한 연

결고리에 따라 서사적 결합을 이룬다. <오누힘내기 전설>의 경우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화소와 화소의 결합이 발견되고 이것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 <표 4>는 바로 그러한 화소별 결합의 패턴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오누힘내기 전설의 화소별 결합 패턴

패턴	주인공	힘내기 목적	힘내기 제안	힘내기 방법	제3자 개입	승자
I	남매	避禍(滅門)아들 救命	어머니	서울 다녀오기/城 쌓기	어머니, 콩밭(팔죽)	아들
II	특정인물(이몽학) 남매	逆謀 만류/관철	누이/남동생	서울 다녀오기/城 쌓기	어머니, 팔죽	아들
III	특정인물(김덕령) 남매	동생 힘자랑 만류	남동생/누이	무등산 돌기/도포 짓기	×	아들
IV	원님(선비), 과부	청혼/수절	원님(선비)/과부	서울 다녀오기/城 쌓기	×	원님(선비)
V	오누이	-	-	질 짓기/못 막기	×	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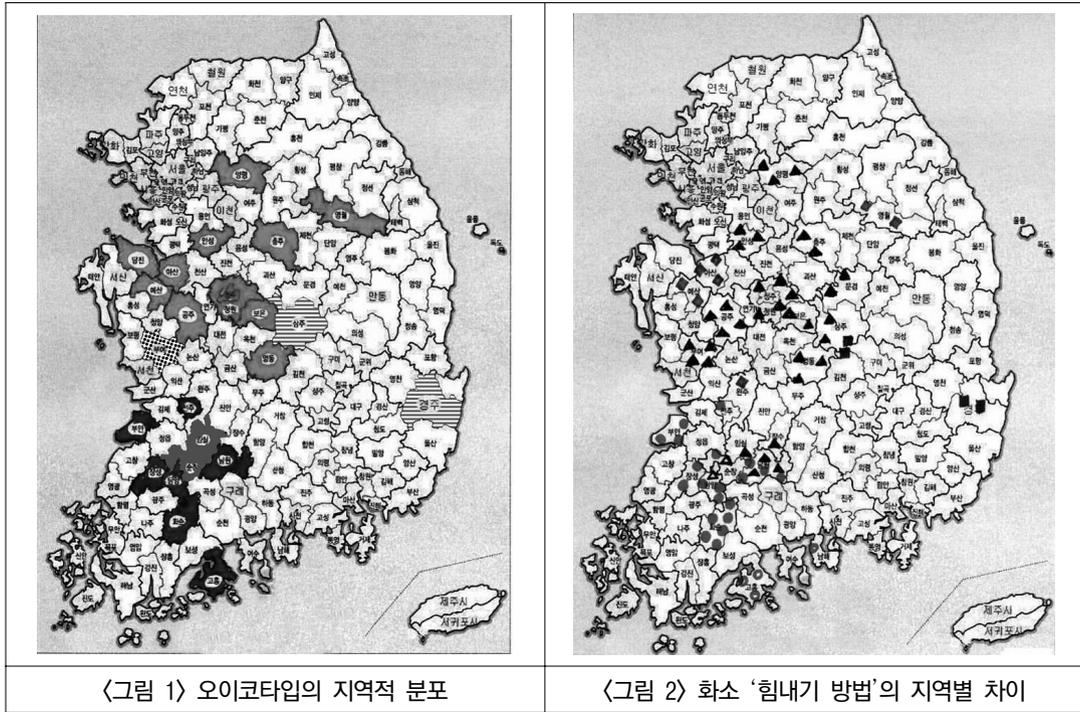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오누힘내기 전설>의 화소와 화소 결합 양상이 그 지역적 분포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패턴 [I]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일대에서 주로 나타나고,⁵⁸⁾ 패턴 [II]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⁵⁹⁾ 그리고 패턴 [III]과 패턴 [IV]는 전라남·북도에서 고루 확인할 수 있는데, 패턴 [III]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패턴 [V]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경상북도에서만 나타난다.⁶¹⁾ 그리고 패턴 [I]과 패턴 [II]에서는 오누이 사이의 힘내기 과정에 어머니로 대표되는 제3자가 개입하여 승부의 향방을 뒤바꾸어 놓지만, 패턴 [III]·[IV]·[V]에서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오누이 사이의 대결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패턴 화되어 있는 화소별 결합의 견고성과 그 분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패턴 [I]~[V]는 <오누힘내기 전설>의 오이코타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설화권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논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58) 각편 9, 10(충북 청원)이 이에 해당한다. 각편 4, 13, 17(경기 안성, 충남 아산, 당진)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패턴 [I]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9) 각편 19, 20, 21(충남 부여)이 이에 해당한다. 최내옥의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에 수록된 <이몽학 오누의 힘내기 전설>(충남 부여)도 패턴 [II]에 속한다. 최내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312~313쪽.

60) 각편 26, 28, 30, 33, 34, 36, 37, 38, 39, 40, 41, 43(전남 장성·담양·화순, 전북 남원·부안)이 패턴 [III]에 해당하며, 최내옥의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에 수록된 <김덕령 오누의 힘내기>(전북 전주)도 패턴 [III]에 속한다. 패턴 [III]의 경우에는 김덕령의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明堂 화소를 앞부분에 끌어들이고, 김덕령 누이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씨름 화소나 馳馬臺 화소를 결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패턴 [IV]에 해당하는 각편으로는 24와 32(전북 남원·순창)를 들 수 있는데,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에 수록된 <홀어미城>(전남 담양)과 최내옥의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에 수록된 <과부 성 쌓기와 원님 서울가기의 힘내기 전설>(전북 임실)도 패턴 [IV]에 속한다.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84, 153~156쪽; 최내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314~317쪽.

61) 각편 46, 47, 50(월성·선산)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 오이코타입의 지역적 분포

<그림 2> 화소 ‘힘내기 방법’의 지역별 차이

〈오누이힘내기 전설〉에 등장하는 주요 화소 가운데 하나인 오누이의 힘내기 방법은 설화권역 논의에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힘내기의 방법이 아들은 굵 높은 나막신을 신고 서울까지 갔다 오고 딸은 성을 쌓기로 약속하는 것은 주로 경기·강원·충청 남·북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반면, 전라 남·북도에서는 아들은 무등산을 돌아오거나 역새로 무등산을 둘러싸기로 하고 딸은 베를 짜거나 도포를 짓기로 하는 것이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影池 전설과 결합되면서 남동생은 절을 짓기로 하고 누이는 못을 막기로(또는 못을 파기로) 하는 것이 서울 다녀오기·성 쌓기와 함께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충남 예산, 아산과 전북 완주에서는 오누이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城 쌓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⁶²⁾ 이처럼 특정 화소의 변이 양상이 지역적 특색을 지니는 것도 설화권역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⁶³⁾

62) 함경북도 혜산과 강원도 영월에서는 각각 土城과 石城을 쌓는 것으로 구연된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화소의 변이는 放鯉得寶型 설화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용왕 아들(딸) 구해주고 보은받기〉담의 경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28편의 각편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 채록된 각편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각편들과 달리 용궁여행 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尹勝俊, 「용왕 아들(딸) 구해주고 보은받기」譯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論集』 1,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168쪽 참조.

63) 위의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설화권역은 세시풍속을 기준으로 ‘단오권’과 ‘추석권’, ‘단오·추석 복합권’으로 구분하였던 金宅圭의 기층문화영역과 유사한 판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문화지도나 민속지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통합적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 -』,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447~457쪽 참조.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균질적으로 조사한 현지조사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각 유형별 오이코타입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화소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각 유형별로 거듭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석하여 설화권역 설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권역 설정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실제로 이야기되는 설화 자체의 특징만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배경, 역사적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하고 여타의 민속 및 생활권역과 관련한 기존 성과와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데이터베이스 및 WEB 시스템 구축

한국 설화문학지도를 전자문화지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지도화’ 작업, 즉 WEB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민요나 마을굿, 옹기 등 민속 전자문화지도의 선례를 참고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의 유형(AT 유형 분류 및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 분류)과 모티프, 구연 상황 등 설화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전자문화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참고로 하여⁶⁴⁾ 설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입력 설계 지침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드 이름	필드 입력 지침
설화명	설화 각편의 제목을 입력한다.
채록 장소	도/광역시, 시/군/구, 읍/면, 동/리의 4단계로 나누어 입력한다.
채록 시기	설화가 채록된 날짜를 년/월/일로 나누어 입력한다.
제보자	제보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를 입력한다.
조사자	조사자의 이름을 입력한다.
구연 상황	설화가 구연된 상황을 입력한다.
유형 분류	설화의 유형 번호와 이름을 입력한다. AT 유형 분류 및 조희웅과 최인학의 유형 분류안에 따른 유형 번호와 이름, 그리고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 분류안에 따른 유형 번호와 이름을 각각 입력한다.
모티프 분류	설화에 등장하는 모티프를 모두 입력한다. 각각의 모티프에 대하여 AT 모티프 분류 및 최인학의 모티프 분류안에 따른 모티프 번호와 이름을 각각 입력한다.
관련 전승	설화와 관련된 인물이나 민속, 놀이, 신앙, 노래, 문헌 등이 있으면 입력한다.
증거물	설화와 관련한 증거물이 있으면 입력한다.
출전	대상이 된 자료의 출처(저자, 서명, 출판사, 간행연도, 쪽수)를 입력한다.
비고	데이터베이스 입력 중에 발생하는 특이사항, 의문사항을 임시로 입력한다.

64) 허용호,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6, 478~487쪽; 허용호, 「민속자료의 구축과 활용 방안」, 『민속연구』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77~78쪽 참조.

설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제보자 및 구연 상황의 사진을 링크시키고 음성 파일 자료를 링크시키거나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결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실제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WEB 시스템 구축 작업은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문화지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⁶⁵⁾

전자문화지도로 제작될 한국 설화문학지도는 학술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설화연구방법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면서 설화문학지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검색 기능이 갖추어지게 되면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권역에 대한 연구는 민요나 마을굿, 민속을 비롯한 다양한 기층문화 권역에 대한 연구와 연계하여 한국문화 지리지를 완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와 관광, 홍보, 타 지방과의 협력을 비롯한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오이코타입을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과 함께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요나 마을굿, 옹기 등 다른 분야에 비하여 오래 전부터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 왔고 자료 수집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축적된 자료의 양도 많으며 활용도 또한 높은 분야가 설화문학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자문화지도 형태의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은 학계 전체에서 공론화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V. 맺음말

구비문학조사방법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비문학 전공 학자를 동원하여 1979년부터 1984년까지 6년에 걸친 현지조사 작업을 펼친 끝에 전국 60개 지역에 대한 구비문학자료를 채록 정리한 『한국구비문학대계』 82책이 1988년에 완간되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채록한 설화 15,10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한국설화유형분류집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색인집도 별도로 간행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설화 연구는 풍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설화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작업은 이를 모범적 선례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래 계획하였던 분야별 구비문학지도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행히 민요와 무가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이나 김현선 등의 개인 연구자를 통하여 전자문화지도 또는 문화지도의 형태로 일부 완성된 바 있으나, 가장 많은 자료를 축적한 설화의 경우에는 설

65)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전자문화지도 구축 방안도 참고할 수 있다. 권순희,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Dataset 구현 방안」,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와 문화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변지선, 「서울지역 마을굿 전자문화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참조.

화지도 작성을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진 바 없다. 본고는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화학계 전체가 나서서 한국 설화문학 지도를 제작해야 한다는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기필되었다.

민요나 마을굿, 옹기의 전자문화지도가 이미 제작 서비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설화문학지도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자문화지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설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설화의 유형 분류나 모티프 색인, 화소별 변이 양상 및 지역적 차이에 따른 오이코타입의 탐구와 설화권역의 설정 등 제반 문제는 기술적 문제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설화의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문화지도 또는 민속지도와 전자문화지도 제작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오늬함내기 전설>을 대상으로 설화문학지도 작성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실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설화문학지도 작성은 ① 1차 자료의 수집, ② 설화 유형별·모티프별 지역적 분포와 변이 양상 검토를 통한 오이코타입의 탐구, ③ 오이코타입에 기초한 설화권역의 설정, ④ 설화문학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WEB 시스템 구축 등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논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에도 한계가 있고 방법론 역시 기본적인 구상 정도에 그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자료 조사와 분석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한국 설화문학지도의 완성은 결코 요원한 꿈이 아닐 것이다. 본고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도경, 『한국전설과 로컬리티』, 태학사, 2012.
-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考察 -』,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민속원, 2015.
- 김재웅,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7.
- 두창구·이동철, 『嶺東 地域 民謠·說話論』, 국학자료원, 2002.
- 成耆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 變異 樣相을 中心으로 -』, 一潮閣, 1979.
- 이영식 외, 『구비문학의 전승과 지역성』, 민속원, 2010.
-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 『한국언어지도』, 태학사, 2008.
- 任哲宰, 『韓國口傳說話』 1~12, 평민사, 1987.
- 趙東一 外,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 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趙東一 外, 『韓國口碑文學大系 別冊附錄 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曹喜雄, 『增補改訂版 韓國說話의 類型』, 一潮閣, 1996.

-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一潮閣, 1981.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최운식 외,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2002.
 崔仁鶴,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仁荷大學校出版部, 199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1~82, 1980~1988.
 리처드 M. 도슨 編著, 羅景洙 譯著,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2. 논문

- 강등화, 「〈땅다지는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18, 한국민요학회, 2006.
 강등화,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
 강정원, 「웅기 문화지도 작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 문화 전파론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김덕호,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김상철 · 윤유석 · 정선에 · 윤나리 · 권윤경, 「문화지도 - 지도를 매체(media)로 한 문화의 이해와 표현」, 『글로벌문화콘텐츠』 1,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08.
 김월덕, 「전북지역 구비설화의 문화지형도」,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김현선, 「전주지역 구전설화의 유형과 미학」, 『옛이야기의 발견』, 보고서, 2013.
 김현선, 「한국민요의 문화지도 착상과 예비적 시론 - 경기민요 〈논매는소리〉를 예증으로 삼아 -」,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나경수, 「전남지역 마을곳의 문화지도 작성」, 『민속연구』 1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7.
 남근우, 「비교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박성용, 「문화지도 :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비교문화연구』 7: 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박성용, 「웅기형태에 관한 문화지도」,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박성용 · 구자봉, 「웅기 '전'의 문화지도 제작 -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작업 -」, 『민족문화논총』 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배영동, 「경북지역 웅기 제작기술의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모색」,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백순철, 「가사노동요의 분포 현황과 특징 - 데이터베이스와 전자문화지도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56, 안암어문학회, 2007.
 변지선, 「서울지역 마을곳 전자문화지도의 구축과 활용방안」,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7.

- 오세정, 「구비설화의 상상력과 지역적 특성 - '이성계 설화' 전승의 공백성 -」, 『설화와 상상력』, 제이앤씨, 2008.
- 오세정, 「지역설화 연구 시론 - 충북지역 전설을 대상으로 -」, 『한국구비문학회 201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구비문학회, 2015.8.28.
- 尹勝俊, 「“용왕 아들(딸) 구해주고 보은받기”譚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論集』 1,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 윤승준, 「龍仁지역의 구전설화 연구 - 그 전반적 특성 구명을 위한 시고 -」, 『인문과학논집』 19,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이간용, 「공주 지역 전설의 지리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25: 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 이기태, 「경북 마을제당 구성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한국민속학』 47, 한국민속학회, 2008.
- 이기태, 「경상북도의 마을신앙의례 분포와 문화권역」, 『민속학연구』 21,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기태, 「道 경계지역 문화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 동제의 대상신을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13: 1, 역사문화학회, 2010.
- 장동호 · 차상인, 「논매기소리의 전자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 2, 한국사진지리학회, 2014.
- 최내옥, 「설화 분야의 평가와 과제」, 『구비문학』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90.
- 崔來沃, 「分布論」, 『民談學概說 - 傳播論에서 構造主義까지 -」, 一潮閣, 1982.
- 최명환, 「역사인물담 전승과 문화권역 설정을 위한 시도 - 강원도를 중심으로 -」,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2009.8.
- 崔仁鶴, 「한국 설화의 모티프 분류」, 『說話文學研究』 (上),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 허용호, 「민속지도론'에 대한 비판적 점검」,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2014.
- 허용호, 「마을곳의 시기와 형식을 기반으로 한 문화지도 그리기 - 서울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무속학』 13, 한국무속학회, 2006.
- 허용호, 「민속자료의 구축과 활용 방안 - 전자문화지도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 『민속연구』 17,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8.
- 허용호, 「전자문화지도 연구에서 민속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비교민속학』 31, 비교민속학회, 2006.
- 야스무로 사토루, 「일본에서 민속지도 경향과 방법 - 일본민속 '쇼가쯔 자카나(正月魚)'의 사례 -」,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빌트하버, 「민속지도 작성법」, 『민속조사방법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3. 기타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IdxIntro.do?method=first>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randculture.net/ko/About?dataType=090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 이 논문은 2016년 2월 17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for Drawing the Map of Korean Folktales

Yoon, Seungjoon*

This paper purposes to suggest a basic plan for drawing a map of Korean Folktales. At first, I researched the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especially on the distribution of tal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ales. Also I researched the recent studies and status of digitalized cultural atlas, folk song, village rites, Onggi(baked pottery), dialect etc.

Analyzing on the distribu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 tale, I suggested the basic plan for drawing a map of Korean Folktales. I classified 54 versions of the legend, brother and sister's competition of strength, included in *The Great Series of Korean Oral Literature Collections*(『韓國口碑文學大系』) and *The Oral Literature of Korea*(『韓國口傳說話』). On the result of analysis, the coupling schemes had a tendency depending on the region. So I could set the oicotypes of this legend. The variations of motif also had a tendency depending on the region. Thus I suggest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regional tale zone could be possible relied upon the tendencies of oicotypes and variations of motif.

The Map of Korean Folktales will be made in a form of digitalized cultural atlas. It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ss; ① data collection, ② data analysis and oicotype research, ③ classifying the regional tale zones, ④ construction of the tale database, ⑤ Constructing WEB system for an internet service of constructed tale database. A Completion of the Map of Korean Folktales will bring expected effects such as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 contribu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 promotion of culture industry and creation, etc.

[Key Words] distribu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motif, variation, oicotype, regional tale zone,
A Map of Korean Folktales, Digitalized Cultural Atlas, brother and sister's competition
of strength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